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하는 연중 캠페인으로 공감대 확산

2013년 CBS 연중 캠페인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가 한국 교회와 함께 하는 캠페인으로 공감대를 넓혀 가며 널리 확산되고 있다.

CBS는 2013년 시작과 함께 CBS의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란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과 기획보도, 특별 방송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

CBS TV는 교계 소식을 전하는 교계뉴스에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코너를 신설해 한국 교회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 사회에 복음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CBS TV는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캠페인 일환으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최빈국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CBS와 월드비전이 함께 하는 2013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Heal the world’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우간

다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니제르, 잠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5월부터 CBS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12월에는 해외 후원아동들과의 가슴 따뜻한 만남을 주제로 한 2부작 특집 다큐 <또 하나의 가족>을 준비하고 있다.

열악한 해외의 선교현장을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선교사들을 조명하며 복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더 미션>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3월 방송됐다.

기아대책과 함께 진행한 이번 특집은 우간다를 품은 처녀 엄마-이명현 전도사, 네팔에 쓰는 희망일기-박재면 선교사, 쓰레기 마을 톤도의 기적-김형갑 선교사 등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선교사들을 소개하며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CBS는 지난 1월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콘서트 지휘자 서희태 씨와 24시간 환아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장군 씨의 사연을 라디오 채널을 통해 알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2월에는 텔런트 김혜자 씨의 사랑 나눔 참여 독려를 CBS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한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제3세계 아이를 돕는 ‘바보들꽃 공동체’ 활동에 적극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등 올 한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방송을 기획하고 있다.

그 밖에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현장을 연중 내내 전달할 예정이며, CBS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도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등 CBS의 연중 캠페인은 전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CBS TV 특집 프로그램 ‘Heal the world’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 촬영 현장.

지난해 한국 교회를 지키는 ‘신천지 OUT’ 캠페인에 앞장섰던 CBS. 올해는 신천지 척결 캠페인은 물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자 하는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CBS 전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송”

인사말

CBS 이재천 사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CBS의 가치와 존립목적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59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생명을 품고 참된 길을 열어온 CBS가 올해는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내 주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기에 따뜻하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지만 진리가 있기에 살아갈 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사랑을 이어가며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2013년 CBS의 목표입니다.

CBS는 1954년 12월, 전쟁의 상흔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복음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치유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와 사랑을 심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거룩한 복음행진 현장에 언제나 CBS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의 대표적 연합기

관이자 방송선교기관으로 CBS는 복음적 가치를 더 높게, 더 넓게 선포하고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라디오방송 하나로 출발한 CBS가 지금은 전국 14개의 네트워크

를 두고 있으며, 해외 30여개 나라 60여개 방송사에 방송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세계 어디서나 CBS TV, 라디오, 노컷뉴스를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전하며 땅 끝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는 내년에 창사6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지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CBS 창사60주년을 CBS의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지금까지 달려 온 길이 가시밭길이었요, 역경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한국 교회와 함께 달려왔기에 감사와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CBS는 앞으로 복음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CBS의 정신입니다. CBS는 진리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CBS 상대로 민사소송과 민원 제기

‘신천지 아웃’에 나선 CBS에 대한 전방위 공격… 한국 교회 기도와 관심 필요

CBS가 벌이고 있는 ‘신천지 OUT’ 캠페인에 대해 신천지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신천지는 CBS가 지난해 보도한 ‘신천지 OUT’ 관련 기사 60여건과 다큐 등 13건 프로그램 가운데 기사 9건과 다큐 프로그램 1건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모두 26곳으로 자신들은 △이만희를 재림주로 칭하지 않았으며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 고 한 적이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CBS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

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 CBS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패하는 것이란 마음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천지의 이같은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신천지는 지난해 CBS 기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줄곧 진행해왔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에 계속적으로 민원과 소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고소 고발 건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에

서는 신천지의 소를 기각 처리했다.

특히 신문윤리위원회는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신천지가 요구한 일간지 ‘신천지 아웃’ 광고 게재 금지 민원을 기각했다.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 학업 포기과 가출, 이혼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천지는 또 지난해 12월 대전CBS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물리적 압박까지 해오고 있다.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

원해 대전CBS 사육을 막지 않았다면 불상사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신천지의 이같은 전방위 공격에도 불구하고 CBS는 신천지 집단의 반사회적 반교회적 폐해를 파헤쳐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위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법정과 언론 심판대에 끌어낸 만큼, 신천지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했다”며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 더 힘차게 끝까지 신천지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

했다.

CBS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 각 지역별로 이단대책, 특별히 신천지 대책 컨퍼런스를 여는 한편, 각 교회별로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알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 ‘신천지 아웃’ 보도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법정에서 “자신이 보혜사 재림주가 아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보도와 △신천지의 차명 부동산 소유 현황 △신천지의 탈퇴자 감시와 폭행 실체 △이만희의 신격화 실체 등을 기획보도한 바 있다.

〈신천지 OUT〉 후원예배 전국 확산

CBS 각 지역 본부별 신천지 대책 컨퍼런스 연중 개최

CBS가 펼치는 〈신천지 OUT〉 캠페인이 방송과 인터넷을 넘어 개교회와 전국 지역교계의 후원예배와 컨퍼런스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주님의교회(박원호 목사)의 CBS 〈신천지 OUT〉 후원예배를 시작으로 1월 16일 일산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 1월 20일 서울 목동 산돌

교회(김강식 목사), 3월 5일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4월 1일 예장 통합 평양노회 장로회에서 CBS 〈신천지 OUT〉 후원예배와 강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백석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교회에서 〈신천지 OUT〉 후원예배가 예정되어 있다.

주님의교회 박원호 목사는 “공격적 포교에 나선 신천지가 대형교회까지 침투해 분란

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CBS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주일1부에서 4부 예배 전체를 CBS 〈신천지 OUT〉 캠페인 후원예배로 드렸다.

또한 포항CBS는 오는 5월 12일 포항장성교회에서, 대전CBS는 6월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신천지 OUT〉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전남CBS, 부



주님의교회(박원호 목사)에서 드려진 CBS 〈신천지 OUT〉 후원예배.

산CBS, 청주CBS, 광주CBS, 대구 CBS에서도 지역 교계와 함께 신천지 OUT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신천지 OUT〉 캠페인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신천지 OUT〉 포스터 제작 배포

CBS는 〈신천지 OUT〉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 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CBS가 전개하는 〈신천지 OUT〉 캠페인과 홈페이지(안티신천지.kr)를 홍보하는 이번 포스터는 신천지의 위험성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신천지의 교회 출입을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BS 윤기화 선교본부장은 “이단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전사적인 운동, 신앙 회복 운동으로 〈신천지 OUT〉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OUT〉 포스터를 제작, 배포 소식을 접한 여러 교회에서 포스터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특히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에서는 〈신천지 OUT〉 포스터를 교단 소속 전체 교회에 배부하는 등 〈신천지 OUT〉 포스터에 대한 한국 교계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 CBS 〈신천지 OUT〉 후원예배 / 포스터 문의 : CBS 선교본부

02-2650-7000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CBS TV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간증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교회에서 3명의 간증자가 출연해 자신의 삶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진행: 송정훈 아나운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간증자의 뜨거운 고백을 통해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출연을 원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참여문의: 02-2650-7000

〈방송시간〉

본방송 매주 월~수 오전7시30분
재방송 매주 목~토 오후7시20분

구로동 눈물의 전도왕에서

목사가 된 **조중순 목사**

(생명수교회 / 4월 16일 방송)

막장인생들이 모여 살았던 구로동 철거민 동네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조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4월 1일 출연: 김포 전원교회(김명근 목사)

중순 목사. 그러나 어느 날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넘어져 4살 된 아들이 죽으면서 남편과 함께 방황하기 시작했다. 자살기도만 수차례,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자 매일 춤추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막내아들을 낳던 중 하혈 끝에 기적적으로 출산하였고, 죽을 뻔 하다 살아난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평생 기도하며 살라는 의사의 말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7년간 전도 대회에서 1등을 하며 전도왕이

됐고, 이후 치유은사를 받고 발에 난 흑도 치유됐다. 32년 사역을 끝내고 쉬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안수를 받게 하시고 얼마 전 교회를 개척했다.

시한부 인생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엄재욱 권사**

(부천기동교회 / 3월 20일 방송)

어린 시절 감나무에서 떨어져 40일 만에 깨어나면서 여러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 엄재욱 권사. 21세 되던 해에 주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육체의 아픈 증상도 모두 사라지고 전도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돈을 벌여 장로로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신학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며 점점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됐고, 그때 암 진단을 받고 5년이라는 시한부인생 선고를 받게 됐다. 그 후기도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이라크 근로자로 떠난 뒤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지으며 지난날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죽음의 저주를 이기고 행복한

만남으로 살아가는 **지혜숙 집사**

(김포 전원교회 / 4월 1일 방송)

놀러나갔다가 시체로 발견된 어린 동생의 일로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지고, 남겨진 아이들도 18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무당의 저주에 두려워했던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나 청소년시절 자살을 결심하는 등 죽음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지혜숙 집사. 결혼 후에도 불임이 되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됐다. 하지만 30대 초반 희귀성 질환을 얻어 병석에 눕게 됐다.

아이들에게 엄마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지혜숙 집사. 현재 14년째 투병하며 대장을 모두 절개했지만 오히려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 복음을 담은 유익하고, 파워풀한 특강 프로그램!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제작된 TV프로그램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은 다양한 영역의 탁월한 강사진을 모시고, 성경 속의 지혜와 복음에 담긴 강의시리즈를 담은 ‘특강 쇼’다.

CBS김필원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맡았으며, 개그맨 권영찬, 방송인 이미나, 배우 김선혁, 최령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더욱 유쾌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가정, 직장, 관계, 재정, 건강 등 삶에서 직접 부딪히는 고민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크리스천 강사진을 모시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과 지혜를 전함으로써 성도들이 정체성을 회복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는 유익한 강의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해 박수웅 장로가 강의를 했으며, ‘중년을 살기 위해’ 이호선 박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수지기쁨의교회 김원태 목사 등이 강의하였다.

◎ 방송일시 :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재방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TV프로그램 ‘세상을이기는지혜, 솔로몬’은 다양한 영역의 강사진을 초청, 성경 속의 지혜와 복음에 담긴 강의시리즈를 담은 ‘특강 쇼’다.

CBS동역교회가 되어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세계미디어 선교파트너



130년 전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

이제, 그 복음의 빛을 전 세계로 갹아 할 때입니다.

CBS는 전 세계 700만 교포들에게 위성방송을 통해 CBS 콘텐츠를 실시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TV, 모바일, 패드), 인터넷을 통해 다국어 버전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선교전략국가에 복음방송을 설립하여 세계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계 미디어선교를 위한 CBS의 비전에 동역교회로 참여해 주십시오.

☎ 참여안내 : 02-2650-7004

“영화 ‘7번방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00만 흥행작 시나리오 집필한 김황성 작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

지난 3월 26일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는 올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시나리오를 쓴 김황성 집사(분당 순복음교회)가 출연했다. 김 집사는 1300만 관객을 웃고 울린 영화 ‘7번방의 선물’의 흥행은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출연 섭외가 왔을 때 너무 기뻐서 1300만 흥행보다 솔직히 더 기뻐했다고 말한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김황성 집사에게 아픔이었고 선물이었다. 김 집사는 한 때 세상과 재물의 유혹을 쫓아 음란물 CD를 판매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나리오로 변화되어 작가 김황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제목에서 숫자 7은 시나리오를 쓴 김황성 집사가 실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머물렀던 방 번호다.

김황성 집사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7번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예전에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좀 잘못해서 구치소에 들어 간 적이 있어요. 구치소에 갔더니 방의 번호에 따라 죄인들을 모아 놓더라구요, 1번, 2번, 3번 방은 다 독방입니다. 그리고 4번 방부터는 폭력·살인, 그 다음에 6번 방이 마약입니다. 그리고 7번방이 경제사범 방이예요. 제가 그 방에 있었습시다. 제가 그 방에서 두 달 반을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있었던 경험을 좀 가져와서 시나리오 제목을 7번방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영화제목으로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잘나가던 광고 카피라이터에서 노숙자로, 죄수로, 다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활의 고통은 그를 힘들게 했지만 이 또한 작가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시나리오를 쓰게 된 작가 김황성 집사는 그동안 <마음이 2>, <챔프>와 같이 가슴 따뜻하고 진한 감동이 우려나오는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제 능력이 줄었어요. 그게 고맙다고 생각을 했죠. 나를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됩니다. 안 써질 때는 거의 안 써져요. 대신 기도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쓰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할 때 김황성 집사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김 집사는 1300만 관객을 웃고 울린 영화 ‘7번방의 선물’의 흥행은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고백한다. 사진은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 서정오 목사, 장주희 아나운서, 김황성 집사(맨 앞줄).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성공하고 유명 작가가 된 지금, 그 기도는 실현되고 있다. 교회 청년부에서 의뢰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뮤지컬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테마로 아주 특별한 뮤지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

끝으로 작가 김황성 집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신앙을 주셨고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돌려 드려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정말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신다면 기꺼이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뉴욕 정00 목사님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거주하시는 74세의 목사님.

3대가 한의사 집안인 목사님께서는 본인도 한의사 자격을 갖고 동남아를 비롯해 페루, 온두라스,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기도와 침술로 자비량 의료선교활동을 펼쳐 왔다고 하신다. 멕시코에서는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 수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잠시 고국에 오신 목사님께서 CBS를 방문해 ‘해외에서는 CBS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하시며 CBS에 후원금을 전해 주셨다. 앞으로도 방송선교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해 달라는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CBS는 늘 가슴에 새기고 방송선교에 임할 것이다.

감동의 후원 스토리

부천시 정00 권사님

올해 89세이신 권사님은 지난해 허리를 다친 후 보조기에 의지하며 생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CBS를 직접 방문해 주셨다.

몸은 불편하지만 매년 성경을 통독한다고 하시는 권사님은 신발이 낡아도 새 신을 사 신지 않고 아껴 모은 돈이라며 겸연쩍게 현금봉투를 내미셨다.

허리를 다친 이후 교회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CBS TV를 시청하신다는 권사님.

CBS TV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며, CBS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지하 개척교회 목회자로 시무하시는 아드님을 위해 늘 기도하신다는 권사님의 믿음의 유산이 앞으로 백배 천배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

CCM 가수 소향, CBS 홍보대사 위촉

CBS는 CCM 사역자 인기가수 소향을 CBS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3월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촉패 수여식을 가졌다.

제5기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 개강예배와 함께 열린 이날 위촉식에서 소향은 ‘You raise me up’,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영감 넘치는 찬양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이번 제5기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수 소향은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CBS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겠습니다”며 CBS 홍보



CBS는 CCM 사역자 인기가수 소향을 CBS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3월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촉패 수여식을 가졌다.

대사가 된 소감을 밝혔다.

CBS는 방송 선교와 찬양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CCM 사역자 소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소향은 CBS 2013 연중 캠페인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비롯해 하나님의 방송선교기관 CBS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국 교회 모든 사역을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
한국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국 교회의 **힘**
한국 교회의 **희망**을
CBS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CBS TV가 2013년 새 봄, 야심차게 기획한 <미션2013 -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땅 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사역을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 건강성 회복의 새로운 단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행 : 임동진 목사, 탤런트 이현경

■ 방송일시

(본방송) 매주 월~목 오후 8시
(재방송) 매주 화~금 오전 9시
(페이스북 계정)
www.facebook.com/cbsmission
(후원 홈페이지) 미션2013.com

CBS의 방송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회원 LOVE.CBS.CO.KR

선교후원 안내
02.2650.7004

CBS선교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802-25-0009-268 우리은행 212-001999-13-045

예금주 : (재)CBS

선교후원 ARS
060.600.7004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부산CBS

성경필사본 전시회 개최

창립54주년 기념, 5. 23~6. 5 사옥 1층 전시

부산CBS는 창립 54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CBS 사옥 1층 전시장에서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산CBS 창립 기념 <성경필사본 전시회>에는 중국어와 일어, 영어, 한글 등 4개 국어로 쓰여진 성경필사본을 비롯해 교도소 수감자들이 쓴 필사본, 한지에 붓으로 옮겨 쓴 두루마리 성경, 성경 66권을 깨알 같은 글씨로 담아낸 병풍성경 등 필사자들의 땀과 혼이 담긴 100여점의 성경필사본이 전시된다.

부산CBS 김창수 본부장은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자는 뜻으로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열게 됐다”면서 “부산, 경남지역 교회와 성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경필사본 전시회는 오는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WCC 제10차 총회 기간에 재 전시함으로써



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대구CBS

창립54주년 기념 음악회

주옥같은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 선사

대구CBS는 창립 54주년을 맞아 남경주, 최정원, 배해선의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4월 18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아르스오케스트라 50인조와 뮤지컬갈라팀, 뮤즈 등이 출연한 이번 콘서트는 CBS청취자를 비롯한 대구시민들에게 주옥같은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제7회 대구CBS배 탁구대회

대구, 경북 기독교탁구연합회 주관으로 지역교계와의 관계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제7회 대구CBS배 탁구대회가 4월 20일 (토) 대구체육관에서 열렸다.

단체전 50팀과 개인전으로 진행된 이번 탁구대회는 대구, 경



북지역 탁구애호 기독교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교제와 따뜻한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전북CBS

고창중계소 개국에 박차

2월 8일, 방통위로부터 설립허가 받아

전북CBS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고창 중계소(FM 96.3Mhz)가 드디어 2월 8일 방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CBS는 2월 22일 ‘고창 중계소 설립허가 감사예배’, 2월 26일 ‘고창 중계소 허가 축하 음악회’를 개최하고, 4월 1일 ‘고창 중계소 설립과 디지털 TV 전환’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펼치는 등 전북 교회와 성도들의 정성스런 기도와 헌금으로 고창 중계소 개

국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고창지역은 전주에서 송출되는 FM 103.7Mhz의 전계강도가 매우 약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CBS 라디오 청취가 불가능한 난청지역이었다. 또한, 전북CBS는 전북 교계와 성도들의 정성으로 지난해 태풍 볼라벤 때 화재로 전소됐던 남원 중계소(FM 90.7KHz)를 정상 복구하여 4월



21일 ‘남원중계소 정상화 감사예배’를 드리고, 5월 ‘김동규와 함께하는 러브콘서트’와 ‘익산 시민과 함께 하는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등 전북 교계와 함께 활발한 연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CBS

찬양의 꽃다발 공개방송

광주CBS 찬양의 꽃다발 공개방송이 3월 24일 하늘교회(지통양 목사)에서 개최됐다.

지역주민과 찬양의 꽃다발 애청

자들을 초대해 함께 한 3월 찬양의 꽃다발 공개방송은 소리엘의 장혁재, 동방현주, 황규승 등 찬양가수들이 출연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나눴으며,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헌금을 전달해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찬양의 꽃다발은 매월 한차례 여는 공개방송으로 지역에 찬양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포항CBS

경주사무소 개소, 방송선교 적극 지원

포항CBS 경주사무소가 2012년 10월 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주시 노동동 경주제일교회로벤피스 건물 2층에 들어선 경주사무소는 경주지역 방송선교 사업과 교계 협력지원 업무, 포항CBS가 경주에서 펼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홍보와 협력 사업 등을 맡게 된다.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교활동에 있어 방송선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CBS는 하나님께서 보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복음기관인 만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공



의가 실현되는 귀중한 공간으로 경주사무소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어쿠스틱 CCM콘서트 ‘위로’

포항CBS 어쿠스틱 CCM콘서트 ‘위로’가 2월 26일 저녁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포항CBS는 지

역교회와 함께 찬양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CCM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무하’, ‘시와 그림’의 김정석, CBS 크리스천뮤지컬페스티벌 대상수상자인 ‘전유람’, 포항중앙침례교회 ‘전하세찬양팀’ 등이 출연, 감동의 시간을 선물했다.

전남CBS

‘CCD SCHOOL’ 개최

전남CBS는 “10년의 사랑! 거듭나는 전남CBS!”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2013 CBS CCD SCHOOL>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전문사역팀인 <DMT>를 초청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천보교회에서 열렸으며,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해 ‘예수 나의 첫사랑되시네’ 등을 배우며, CCM과 더불어 CCD 배우기 등 전문적인 트레이닝



일정을 소화했다.

<2013 CBS CCD SCHOOL>은 청소년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 및 단체의 청소년 전도 활용에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 훈련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제5기 개강

CBS의 제5기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가 3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16주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CBS 이재천 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문을 연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4기에 걸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조용근 전 세무사 회장,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 등을 비롯한 크리스천 리더 160여명을 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5기에도 국회의원과 판 검사, 주요기업 임원, 중견기업 대표 등 40여명



CBS의 제5기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가 3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16주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 지원했으며, 최일도 다일공동체 목사, 이재철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 이은일 창조과학회 회장 등 각 분야의 크리스천 최고 강사진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명실상부한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

데미’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충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크리스천 CEO 과정이다.

‘CBS광장’ WCBA방송대상 수상

CBS광장(진행 나이영, 제작 이덕우/ 주일 17:05~18:00)이 제4회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방송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CBS광장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전략을 제시하는 교계시사 프로그램으로 <SNS 시대의 선교전략>, <목회자와 세금납부> 등 교계의 주요현안들을 집중 조명해왔다.

특히 지난해 5회에 걸쳐 신천지 척결을 위한 특별기획을 제작해 신천지에 대한 경

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신천지 핵심강사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증언과 신천지 탈퇴 후 이단상담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전도사의 경험사례, 신천지의 이단성을 취재해 온 기자들의 취재내용, 일선 목회자의 교회 내 침투사례 증언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CBS광장’은 보다 쉽게 신천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시상식은 5월 6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18회 WCBA총회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다.

국내 유일한 가스펠 색소폰 경연

제2회 CBS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 개최

제2회 CBS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가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 꿈의숲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 예선과 서울 예선을 통해 선발된 아마추어 연주자 10팀이 펼친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한 가스펠 색소폰 경연의 장으로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색소폰 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CBS소년소녀합창단 미주 공연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월 LA 공연(Azusa Pacific University, 새생명비전교회, 얼바인침례교회)을 통하여 현지 교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특히 Azusa Pacific University 공연은 4천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한국 전통



의상과 함께 선보인 북춤과 찬양곡으로 큰 관심과 갈채를 받았다.

CBS한일연합선교회, 일본 사무국 설립

CBS-JAPAN 일본어 사이트도 오픈



CBS한일연합선교회는 최근 일본 나가사키에 사무국을 설립하고, CBS-JAPAN (www.cbsjapan.tv) 일본어 사이트를 오픈함으로써 일본 미디어선교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또한 CBS한일연합선교회는

오는 7월 ‘제2회 나가사키 대장정’을 준비 중이다. 참가자들은 나가사키의 순교지를 순례하며 일본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문의) CBS한일연합선교회 02-2651-4204

해외송출 CDN 서비스 개시

CBS 콘텐츠의 해외 공급방식을 4월 1일부터 CDN(CBS Contents Delivery Network)서비스로 개편한다. 그동안 CBS는 KT 해저 케이블망을 이용해 CBS미주본부(LA)로 콘텐츠를 송출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웹사이트(www.worldcbs.com) 접속으로 CBS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CDN 서비스 개시로 CBS는 IP 기반의 해외 방송선교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CBS의 글로벌 선교 확장에도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문의: 02-2650-7076

하나님께서 나가사키에 ‘CBS한일연합선교회 일본 사무국’을 설립하셨습니다. 나가사키는 많은 순교자가 나온 지역입니다. 또한 원폭 핵무기가 투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가사키는 슬픔과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도시, 시골 어디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건너왔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부터의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광대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선교가 꼭 필요합니다. 부디 일본인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노하라 히로시 목사
(CBS한일연합선교회 일본 사무국장)

첫 사랑의 열정으로 뛰겠습니다

CBS신입사원(방송경영) 서유미

“안녕하세요? CBS 신입사원 서유미입니다.”

꿈꾸던 직장 CBS에 입사한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렸던 인사를 떠올려보며, ‘CBS’와 제가 첫 인사를 나눈 추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이 생각나고 마음이 허전해질 때 저는 습관

처럼 라디오를 켜곤 했습니다. 그때 자주 들었던 프로그램이 CBS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는 내일을 시작할 새로운 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CBS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CBS의 뜻뜻한 첫 사랑은 시



작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다시 만난 CBS는 그 시절 제가 느낀 것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가까에서 보고 들으며, ‘방송 선교’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CBS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시절의 첫 사랑을 잊지 않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의 설렘을 기억할 때 사랑이 더욱 성숙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헌신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선교도 CBS입니다

라디오와 TV 선교방송, 인터넷과 신문은 물론
스마트폰 앱과 태블릿 PC, 카카오톡과 스마트 TV까지,
모든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CBS는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